

한국남동발전 'KOEN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1 한국남동발전 전경 2 유향열(왼쪽에서 두번째)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가상발전소 기술이 적용된 관제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3 유향열(왼쪽) 사장이 경남도와 추진한 지역아동 온라인 학습지원 인프라 전달식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2050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 Zero)를 기관 목표로 설정, 석탄 화력 출구전략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분산 전원 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KOEN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힘차게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분산 전원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공기업 최초의 대국민 분산 전원 기반 가상발전소 구축이라는 KOEN의 미래 먹거리 중점 사업이다. 그린 뉴딜로 확대되는 전국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가상발전소(VPP)로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VPP 시범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문 운영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관의 명운을 건 뉴딜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KOEN 뉴딜 계획에 대해 '변하지 않으면 도태당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낸 구성원 자신의 다짐'이라고 소개했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공모를 진행했더니 접수된 80건 중에 뉴딜 관련 아이디어가 34건이나 나왔다"면서 "디지털·에너지 전환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미래에너지 정책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전체 발전 비율의 95%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한편, 공기업 최초의 가상발전소 운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 같은 노력 이면에는 석탄발전기 국내 최다 보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기관의 절박함이 숨어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전쟁'...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목표

한국남동발전은 'KOEN 뉴딜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혁신성장 인프라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이른바 'KOEN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5조7천억원을 투자해 4만9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3

그린뉴딜 로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에너지

일상에서 만든 청정 에너지가 안전한 미래를 설계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있는 에너지
KOEN이 만듭니다.



경남 청태양광(67MW)



군산수상태양광(18.7MW)



달려해상풍력(30MW)

KOEN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KOEN은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운 해상풍력발전 목표 1만2천 MW의 33%인 4천 MW의 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확보, 해상풍력발전을 선도합니다.

KOEN은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가 가능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에너지생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